

2006 6월호 제375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6월호

발행일 : 2006. 6.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6
통권 제375호 6

생각해봅시다	4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 최혜실
의식조사	6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에너지절약가이드	9	'3+6=9 운동' 과 '승용차 요일제'
고발사례	10	소비자의 소리 / 광정자
소비자정보	12	'은나노 항균 젓병', 항균력 미흡·효능 과대표시
소비자경보	14	해외인턴십, 선불리 계약하지 마세요!
알아봅시다	16	차외선화장품, 효과 있나요?
소비자뉴스	18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시작
식품뉴스	20	'쇠고기 원산지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여성뉴스	22	유치원에 50~60대 여성도우미 배치
에세이	24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 한순
금융길라잡이	26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부동산정보	28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란?
생활정보	30	가스안전사용 요령
음식이야기	32	푹고추, 영향 만점! 다이어트 만점!
가정요리	34	담백하고 고소한 두부요리
건강	36	치아 건강의 첫 걸음, 유치(젓니)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알뜰정보	38	장마철, 자동차 관리 10계명
문학산책	39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	40	낭만과 운치가 있는 '빗속 여행지'
지부소식	41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50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부산지도자대회(부산광역시지부, 06. 5. 12), 제11회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전라남도지부, 06. 6. 17)〉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최 혜 실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침 이다.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길에 오른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에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낸다. 교문 앞이다. 어떤 대학에서 교수 출퇴근 사항을 카드로 자동 입력시켜 연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일반 직장에서 전자 출근부야 물론 보편화한 현상이다.

강의실이다. 학생들의 출석은 전자카드에 의해 자동 입력된다. 스마트카드라고 해서 학생들의 등록, 도서관 책 대출 등 모든 활동 상황이 카드 하나로 처리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연구실로 들어와 이 메일을 체크한다. 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추천 책이 왔다. 신기하게도 모두 내가 원하는 책들이다. 십 수 년의 나의 책 구매 성향을 보고 추천하는 책이니 아마 나보다도 나의 연구 성향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천 물품도 도착했다. 지난 몇 년 간의 구매 현황을 알고 있으니 내가 좋아할 물건들

이 골고루 잘 구비되어 있다. 저절로 손이 원하는 물건으로 간다. 클릭하고 내 카드 번호를 기입한 후 구매한다.

갑자기 기분이 언짢아졌다. 나의 신용카드를 오늘 나의 출퇴근 시간과 방향, 도서 구입과 물품 구입 현황을 눈에 보일 듯이 훤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퇴근 후에 가는 서점, 쇼핑몰, 음식점, 술집 등도 잘 알게 된다. 이런 데이터가 십 수 년 쌓이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지 잘 알게 된다. 나는 부처님 손 안의 손오공처럼 그들의 소비 충동에 속수무책으로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정보를 한 개인이 아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란 기계가 아는 것이니 굳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위안을 비롯듯이 핸드폰의 벨이 울렸다. 무선통신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 요금을 권유하는 전화였다. 안내원은 평소 나의 통화 시간대, 통화 대상자들

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그런 성향에는 이런 서비스 요금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불쾌한 생각에 무뚝뚝하게 전화를 끊었다. 컴퓨터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사 직원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적인 소통 장치라 생각했던 무선전화가 백주 대낮의 거리보다도 더 공개적으로 타인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심지어 내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까지 하는 안내원의 친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마침 회의 장소 옆에 백화점이 있어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들렀다. 고가의 수입 제품을 사고 카드를 긁었다. 그런데 카드가 지급 중지가 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장소에서 고액의 물품을 사는 등 지금까지 이십 수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소비 성향을 보여 카드사에서 내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한다. 마침 통신사를 바꾸었기 때문에 연락이 가지 않았고 도난당했다는 판단 하에 지급 중지를 했다는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카드 회사는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의 나의 동태를 주시하고 언제 어디를 가는지 파악하며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있으면 카드사는 나의 소비행태와 행동반경을 기업에 파는 사업으로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챙길지 모른다.

국제회의 장소에 갔다. 전자등록을 마친

상황이어서 곧 카드가 지급되었다. 그 카드에는 RFID(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미자격자나 수상한 사람의 동태는 곧 파악되어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으며 나중에 회의 참석자의 강연 프로그램 선호도가 즉시 분석된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경비실 화면에 집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에 신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를 두 부부가 같이 나갔었는데 들어올 때는 맨발의 당황한 남편의 모습만이 화면에 잡혀있어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범죄자를 잡는 그 카메라는 지금 나 또한 범죄자처럼 노려보고 있다.

집에 들어와서 TV를 켰다. 갑자기 기분이 오싹 해지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지금 켜진 TV 화면 저쪽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천정 어느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눈물이 났다. 조지 오웰의 <1984년>보다 더 큰 대형 화면에서 **‘빅 브라더’***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꿈을 꾸며 눈물을 흘렸다. ■

※(주) **빅 브라더** :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이 1948년에 36년 후의 세계를 묘사한 암울한 소설 『1984』에 나오는 존재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부도덕한 감시권력이다. [편집자주]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지도 매우 낮아

-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

각종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구매 패턴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5월 1일~20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1.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 및 구매 의사

구매경험 83.5%로 높아

한 번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3.5%, 16.5%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입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88명) 중 62.5%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5.7%에 불과했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정도

친환경제품으로만 구입 7.9% 불과

응답자의 7.9%만이 '모든 먹거리를 친환경 농산물 제품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뿐, 29.9%는 '대체로 구입한다'에, 47.0%는 '가끔 구매한다'고 했다.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순

야채류(58.4%) 가장 많이 구입

친환경농산물중 우선 구매 순을 확인한 결과 야채류가 58.4%로 가장 많았고, 16.4%는 곡물

류, 11.2%는 과일류였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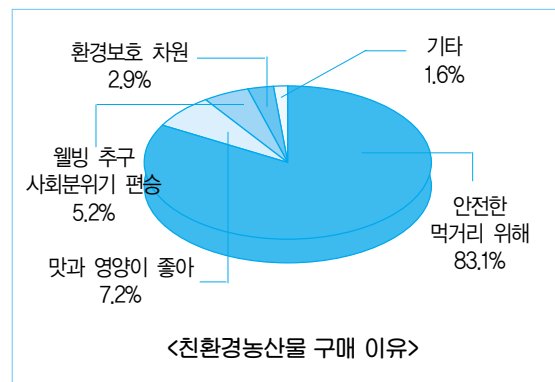
83.1%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자 83.1%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고 했다. 맛과 영양을 고려한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친환경상품 구매 장소

생필품 구입이 편한 할인점 48.5%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소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할인점(48.5%)과 백화점(24.7%)을 택하였



고, 슈퍼마켓(11.0%)과 전문매장(15.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소 선택 배경은 34.6%가 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20.7%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한 곳, 품질이 우수한 곳(17.3%)과 근접 거리에 있는 곳(14.8%) 순이었다.

2. 친환경농산물 표시 및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확인 구매여부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 34.2% 불과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인증마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는 응답자는 34.2%에 불과했다. 33.0%는 대충 마크만 있으면 구매한다고 했고, 30.8%는 친환경농산물 코너에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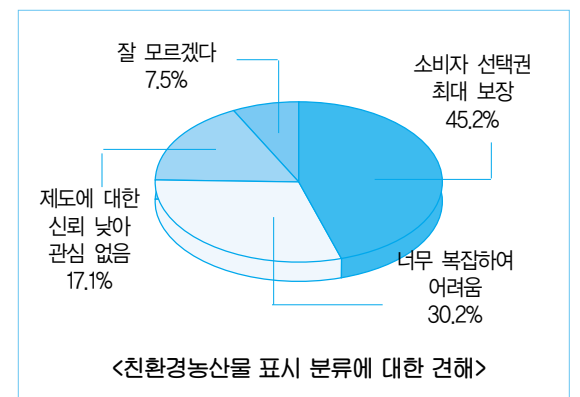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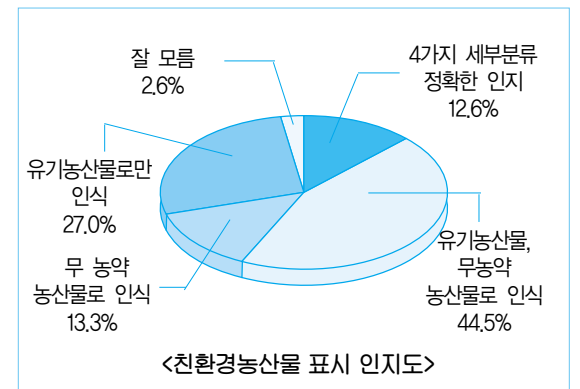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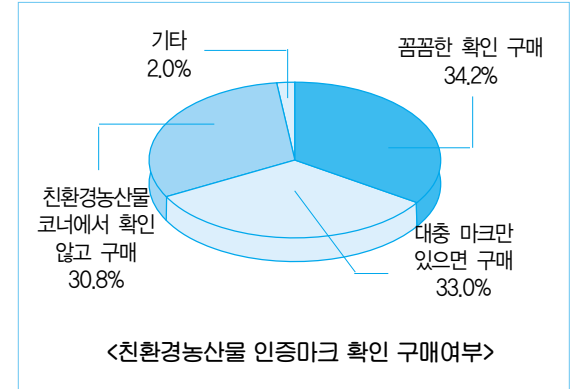
정확하게 인지하는 소비자 12.6% 불과

친환경농산물이 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2.6%에 불과했다. 44.5%나 되는 응답자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27.0%는 유기농산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 분류에 대한 견해

분류 복잡하고 제도 자체 불신 54.8%

친환경농산물을 4가지로 세부 분류하는 것에 대해 45.2%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라는 견해를 밝힌 반면, 30.2%는



너무 복잡하여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17.1%는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관심이 없다고 했다.

품질 인증제도의 신뢰도 및 신뢰 이유

78.9% 신뢰, '생산자 표기'가 신뢰감 높여줘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78.9%가 신뢰하는 편인데 반해 21.0%나 되는 응답자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중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50.8%가 '생산자 표기 등이 있어서'라고 한 반면, '정부가 인정한 제품이어서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3.5%, '판매처를 신뢰 할 수 있어서'를 이유로 든 사람은 11.9%에 불과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11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39.3%가 '품질 수준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아서', 29.5%는 '유통구조를 믿지 못해서', 19.6%는 '인증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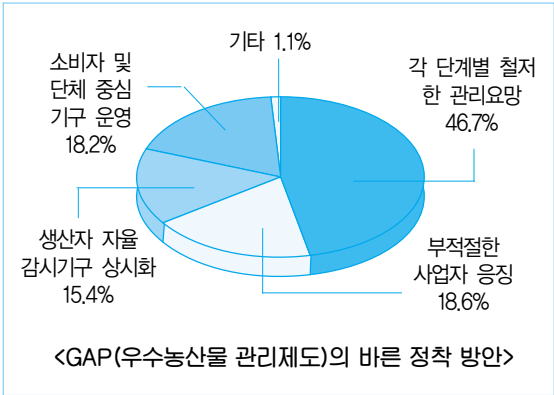
3.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지도
6.4%만 알고, 43.2% 모른다고 답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고, 실시 여부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21.4%나 되었다.

'GAP제도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9.6%로 조사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의 바른 정착 방안
소비자 46.7% 각 단계별 철저한 관리 요망



의식조사결과, 조사 대상자의 87.4%의 소비자가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7.7%만이 알고 있어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 대상 응답자 중 79.6%가 'GAP제도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이름뿐인 제도가 아닌 실천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안전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생산자 및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관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대전광역시지부>

「3+6=9 운동」과 「승용차 요일제」

신고유가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하자.

3+6=9 운동

국민들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3가지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 6가지를 선정했다.

• 지금 바로 실천합시다 (생활 실천 3개방안)

- 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자
- ②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두자
- ③ 승용차 요일제(또는 부제운행)에 참여하자

•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관심 실천 6개방안)

- ④ 여름철 건강온도는 26~28℃를 유지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자
- 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자
- ⑥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말자
- ⑦ 차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자
- ⑧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 ⑨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승용차 요일제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 중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이 제한된다.

• 대상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기준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 방법 : '끝번호 요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 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하여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해당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함)

소비자의 소리

PDA폰 보증기간이내 동일 결함 4회째 발생, 제품교환 요청

내용 백재규(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씨는 2005년 6월 10일 싸이버 뱅크 PDA를 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해 오다가 3개월 지나 9월 14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는데, 사용 중 전화 통신 불량에 빈번히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2005년 9월 1일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CDMA 모듈을 교체 받았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CDMA 모듈을 교체, 메인보드도 교체 받았다.(CDMA 모듈교체 3회, 메인보드교체 1회)

그러나 2006년 6월 9일 동일 결함으로 통신 불량이 또 발생하여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제품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싸이버 뱅크의 답변은 문서상 본인이 직접 사용한 2005년 9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A/S건에 대한 부분만 보상 규정에 포함될 뿐, 그 이전의 A/S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명의변경 이후의 수리 이력으로는 환불이나 제품교환이 안 된다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왔다 한다.

처리 명의변경은 늦게 했어도 기기의 실소유자이고 처음부터 기기의 A/S 접수 및 상담은 본인

이 직접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 줄 것을 Fax로 재검 및 의뢰하여 6월 17일 새 상품으로 교환처리 하였다.

인터넷통신 해지통보 없이, 모뎀만 반송하여 연체료 179,810원 청구

내용 최경희(울산시 중구 다운동)씨는 2002년에 온세통신과 인터넷 계약을 하면서 자녀가 자취하고 있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취방에 설치 본인명의로 체결하였다.

2004년 12월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온세통신에 통보하지도 않고 임의로 모뎀을 택배로 반품하였다. 그 후 모뎀이 재반송은 되지 않았으며, 일주일 전에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이 체납되었다며 온세통신에서 179,810원을 청구하였다.

소비자가 해지통보 하지 않고 모뎀을 반송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온세통신에 조회결과 그 모뎀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4월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피해구제 요청하였다.

처리 해지통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도 있으나, 모뎀 반품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청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2005년 5월 31일이 3년 계약

기간 만료일로써 그 기간 까지만 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05년 5월(4월분)까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년 5월분 사용요금 34,830원이 6월 청구 금액인데 이미 소비자통장에서 요금 12,510원이 자동이체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납금 22,320원만 통신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료서비스 불만 피해구제 요청

내용 오원석(충남 당진군 당진읍)씨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푸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 가료 중 몇 가지 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간염검사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어 더 많은 기간(7일)을 입원함과 동시에 병원비와 입원비 및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당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처리 푸른 병원 측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방 및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병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 합의 결과 치료비 및 통원 치료비 등 50만원 배상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중국여성과의 결혼주선 약속 결혼정보회사에 400만원 지불, 성사 되지 않아 해약 환급요구

내용 손영규(경북 구미시 지산동)씨는 2005년 6월 7일 미래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하여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 받기로 계약하고 수수료 4백만

원을 지불하였다.

2005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결혼할 당사자와 직접 선을 보았으나, 서류상 남편과의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건이 맞지 않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업체에 전화하여 중국왕복 경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요청 하였더니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

처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환불해주도록 했다. 항공료 74만원, 모델이용료 100만원, 기타 제반경비(현지 직원 수고비등) 40여 만원을 공제한 금액 2백만원을 6월 14일 소비자에게 계좌 입금 조치 하였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의료매트 반품 요구, 행사장 철수 및 회사 연락처

내용 박영희(대전시 서구 내동)씨는 모 예식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쇼를 공연한다고 하여 갔다. 행사가 끝난 후 상품을 홍보하면서 행사 기간이라 반액 세일가격에 다른 생활용품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의료 매트를 구입하였다.

충동구매 한 것 같아 다음날 반품하려고하니 행사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고, 구입당시 아무 기재사항이 없는 영수증만 받았기 때문에 반품을 못하고 있다.

처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반품이 가능하여 상품을 만든 본사를 알아내 연락 후 반품조치토록 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은나노 항균 젖병’, 항균력 미흡 · 효능 과대표시

- 항균제품에 대한 과신보다는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 -

최근 은나노를 첨가해 항균력을 지닌다는 ‘은나노 항균 젖병’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은나노 젖병 17종과 일반 항균 젖병 1종 등 총 18종을 항균 실험한 결과 전 제품 모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젖병은 아기의 입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아기에게 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균력을 지닌 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유아용 젖병 시장에 ‘은나노’ 바람이 거세진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은나노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은’은 첨단과학의 대명사격인 ‘나노기술’을 보태 ‘나노 실버’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은을 나노 크기로 가공하면 은 사용량이 줄어 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널리 사용되지 못하다가 나노기술이 접목되면서 응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은의 살균 항균 기능은 예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시험실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시험실 조건에서의 효과는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나노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험 조건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업자가 제시하는 효능의 근거가 실사용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나노 젖병, 비싼 가격에 비해 항균력 미흡

일반젖병보다 평균 30% 이상 가격이 비싼 ‘은나노 항균 젖병’.

은나노를 첨가했다는 플라스틱 젖병 소재를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2종류의 세균으로 시험한 결과, 은나노 전 제품의 항균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온에서 물에 탄 분유를 은나노 젖병에 넣고 미생물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일반 젖병에 넣은 것과 비슷한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은나노 항균 젖병을 사용할 경우 물에 탄 분유를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항균 젖병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는 소재의 항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젖병 내 분유까지 항균성이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항균을 표시한 젖병에 대한 과신보다는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하는 세척 및 살균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조제 분유와 이유식은 섭씨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서 먹여야 안전하고, 먹이고 남은 분유 등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위생적인 젖병 관리 요령

아기가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모든 수유 기구를 살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젖병을 올바르게 살균하는 방법이다.

● 끓이기

- 젖병 안에 공기방울이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큰 그릇에 수돗물과 젖병을 넣는다.
- 뚜껑을 닫고 5분간 센 불로 빨리 끓인 후 식힌다.
- 먼저 비눗물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살균한 젖병을 만든다.
- 살균한 젖병은 깨끗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24시간이 지난 것은 다시 끓여 살균한다.

● 화학적 살균세정제

- 액체나 정제로 되어 있는 살균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올바른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과 세정제를 섞은 용액에 젖병을 담그는데 중요 포인트는 모든 표면이 잠기도록 하는 것이다.
- 적어도 1시간 이상 담그고, 사용한 용액은 24시간이 지나면 버린다.
- 세정제를 담았던 통은 새 용액을 담기 전에 따뜻한 비눗물로 씻어낸다.
- 젖병을 꺼내서 묻어 있는 용액을 털어 버린다. 하지만 다른 물로 헹구지는 않는다.
- 남아있는 용액에 의해 금속제 통은 녹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세정제를 담은 통은 플라스틱이나 유리통을 쓰도록 한다.

〈‘소비자시대(06.5)’에서 내용 일부 발췌〉

해외인턴십, 선불리 계약하지 마세요!

- 무등록 해외인턴십 업체 난립하면서 구직자 피해 속출 -

국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외인턴십을 통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취업기회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취업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인턴십은 일정기간 해외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문경험을 쌓고 인턴십 후에는 취업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생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취업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선불리 계약했다가는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 현황 및 유형

올 들어 5월 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인턴십 피해 상담은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외인턴십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계약해지 시 환불 거절·지연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해외인턴십 알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시 대부분 전혀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40%~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 계약 내용과 상이

실제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알선업체의 설명과 다르거나 엉뚱한 곳에 취업이 되는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십이 진행되는 피해가 많다.

◆ 계약 불이행 및 지연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십을 진행하려

면 300만원~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알선료를 지불한 후 취업알선 및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피해 원인

◆ 무등록 알선 업체 난립 및 현지 정보 부족

해외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해외인턴십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있다.

◆ 구두상 계약으로 효력 상실

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 알선업체의 등록여부 및 신뢰성 확인

해외인턴십을 의뢰하려는 업체가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공신력이 있는지, 오랫동안 인턴십을 운영해 왔는지 등을 확인한다.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만 워크넷(<http://work.go.kr>)에서 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지 등 업체 정보를 파악한다.

◆ 계약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및 관련 자료 확보

계약내용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한 경우 나중에 피해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인턴십 일정, 취업대상 업체, 취업기간, 비용,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관한다.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와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업체의 고용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한다. 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해외취업 경험자를 통한 정보 습득

취업업체에 대해 알선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현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해외인턴십이나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지 정보와 취업업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

◆ 선부른 행동은 금물!

취업일정 및 출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불리 휴학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 <내용참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자외선화장품, 효과 있나요?

- 피부 상태 ·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선택해야 효과 커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자신의 피부상태와 환경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외선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자.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자외선에 노출된 후 수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빨갛게 되며, 이 붉은 정도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지속되는데 이것을 선반이라고 한다. 과량의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는 더욱 진전되어 물집이 생기는 증 화상상태가 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일광화상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자외선 A는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 량의 증가가 피부암 발생률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외선차단화장품 어떻게 선택할까?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 A차단등급(PA)이 높을수록 자외선차단효과가 크다.

다만, 사용 목적과 때와 장소 및 자외선에 대한 피부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SPF 10, PA+(one plus) : 산책, 쇼핑, 세탁물 건조, 출·퇴근, 등·하교 등의 일상생활
- SPF 10~30, PA++(two plus) : 실외에서의 간단한 스포츠, 레저 등으로 비교적 장시간 태양 아래서 활동하는 경우
- SPF 30 이상, PA++(two plus)~PA+++ (three plus) : 해양 스포츠나 스키, 온천에서의 레저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

외선을 쪼이는 경우, 고지대 또는 적도 부근 등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의 사람들이나 여행자

내 피부에 적합한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정상피부에는 SPF 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하다. 지성피부에는 정상피부와 같은 SPF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정상 피부보다 SPF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는 SPF 3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 3~4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안전하다.

건성피부에는 정상피부보다는 높고 과민성피부보다는 낮은 SPF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아와 어린이에게 자외선차단화장품 사용은?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은 유아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유아의 미성숙 눈은 특히 태양광선에 취약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긴 소매의 옷을 입는 등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 또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

시~오후 3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고, 챙이 넓고 촘촘하게 짜여진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입히는 것이 좋다.

어른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제로 오일을 사용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으며, 눈 주위를 피하여 발라주어야 한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 외출 30분전에 미리!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이 가볍게 바르며, 바른 즉시 밖으로 나가면 햇빛에 의해 자외선차단제가 증발함으로 보통 외출하기 30분전에 발라 완전히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 2~3시간마다 반복해 발라줘라!

자외선차단화장품은 땀이 흘러내려 수건이나 손수건, 손으로 닦으면 묻어나는 물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2~3시간마다 반복하여 발라주어야 한다.

● SPF 과신은 금물!

사용 목적, 사용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바르는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잘못 사용하면 처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대한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피부를 과도하게 햇볕에 노출시킴으로서 더 큰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내용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시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4일부터 '내 연금 알아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에 들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 가입자 자신이 납부한 연금내역은 물론, 퇴직 후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노후에 자신이 희망하는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6월부터 병원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률 기본식 20%, 가산금액 50%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이 6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식대의 환자부담 비율을 기본식대는 20%, 환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액은 50%로 정했다. 이를 기초로 할 때 입원 환자는 밥값으로 한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지불하면 된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정하고, 선택 메뉴 가산 등으로 식사 질을 높이더라도 최고 5,680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자 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기로 했다.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병원들은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 고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만 한다.

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 약국에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용법·용량에 맞는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의료기기로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경구용시린지)를 약국에 비치토록 하여 구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사용이 2006년 1월 27일부터 의무화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제조업자(수입자)가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는 계량컵, 계량스푼을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고시)」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킴에 있어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의사·약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함께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할인점 공식 명칭 '대형마트'로 변경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점'의 공식 업체 명칭을 '대형 마트'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법령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그 종류로 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시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할인점'을 '대형마트'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할인점'이란 용어가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

고 있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주고,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킨다는 중소유통업계의 불만 및 개정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여러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1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2000㎡ 이내로 변경했다.

「스타벅스 커피, 비만·癌 유발 가능성」- 美 소비자단체, 반스타벅스 캠페인 추진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공익을 위한 과학자 센터(CSPI)'가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선언했다.

CSPI는 18일 "스타벅스가 비만과 심장병,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반(反)스타벅스 캠페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CSPI는 지난 13일 패스트푸드 업체인 KFC를 전이(트랜스) 지방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혐의로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SPI 제이콥슨 사무총장은 "스타벅스 고객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사실상 패스트푸드만큼 몸에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중산층, 건강식, 세련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노조측도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일한 뒤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상품의 영양 성분을 인터넷이나 매장에 비치한 팸플릿뿐 아니라 메뉴판에도 표시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스타벅스가 판매 중인 20온스(600ml) 벤티 사이즈의 바나나 모카 프라푸치노(휘핑크림 포함)의 경우 720칼로리와 11g의 포화 지방이 함유돼 있다.

한편,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지방 제품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젓소,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즉 식당 내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했다.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만~7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개정안이 현행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여론에 따라 광고에 ‘해당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최고’, ‘가장 좋은’, ‘특(特)’ 등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유·이유식 70도 이상 물에 타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분유와 이유식은 섭씨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서 먹여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너무 뜨거운 경우엔 흐르는 물에 식힌 뒤 바로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먹이고 남은 분유 등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젓병과 젓꼭지, 스푼 등도 깨끗이 씻어 살균·처리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신생아와 유아에 장염과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주로 젓병 등의 오염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이어 조제분유와 이유식은 멸균제품이 아니며, 특히 이유식은 각종 곡물과 과일 분말 등을 혼합한 저온살균 제품으로 미생물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적포도주 수면에 도움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19일자에 적포도주가 쉽게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마르첼로 이리티 박사가 과학전문지 ‘식품-농업과학 저널(Journal of Food and Agriculture)’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포도의 껍질에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통제하면서 잘 시간이 되면 이를 알려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밝히면서 적포도주를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말했다.

뇌의 송과선(松果腺)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체내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데, 이리티 박사는 네비올로, 크로아티나, 상기오베세, 메를로, 마르제미노, 카베르네 프랑, 카베르네 소비뇽, 바르베라 등 8종류의 포도 추출물을 검사한 결과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매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정종태 보해 중앙연구소장의 연구 논문 ‘매실로부터 암세포를 억제하는 새로운 함암 물질의 분리 동정(同定) 및 그 활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농업·식품 전문잡지에 실린다. 미국 화학협회(ACS)가 발행하는 ‘JAFC’(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의 2006년 9월호(제54권)에 게재될 이 논문에서 정 소장은 매실에서 암세포를 저해하는 활성물질 ‘B-1’을 분리 정제, 그 물질의 함암

활성을 분석한 결과 높은 암세포 생육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소장이 ‘Prunate(C19H22O6)’라고 명명한 이 물질은 후두암, 신장암, 자궁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해 80~90%의 높은 암세포 생육 억제를 보이는 반면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23% 이하로 낮은 억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실에 함유된 ‘Prunate’라는 물질이 정상세포 보다는 암세포들에 대해 특이적으로 높은 생육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정 소장은 매실에서 분리된 새로운 물질 ‘Prunate’가 암세포 저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성 물질로 개발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매실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숙취해소, 노화방지,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과실로 잘 알려져 있다. ‘신이 내린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매실의 또 다른 효능을 연구하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 실험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 금연보조음료 적발 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금연육구에 편승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점을 이용, 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불법으로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해 금연보조제로 허위, 과대 광고해온 업자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모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군 소재 식품제조 공장에서 음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며 혈관을 수축하는 등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코틴을 리터당 7mg씩 첨가해 혼합음료인 ‘기꼬니코워터’ 13만1000병을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꼬니코워터는 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함유된 음료제품임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치원에 50~60대 여성도우미 배치

일반 유치원에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0대 여성도우미가 배치돼 원생들을 돌보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25일 중고령층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유치원에서 다정한 할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 교육청 286개 종일제 유치원에 50~60대 여성 유급 자원봉사자를 두기로 했다.

올해는 6억9000만원을 들여 6월부터 연말까지 시범 실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급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하루 4시간 이하 기준으로 1만5000원씩 월 30만이 지원된다.

“억척 여성들, 일터로” 여성 고용률 사상 최고

남성의 취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취업시장에서도 성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여성 인구로 나눈 여성 고용률은 지난 달 49.8%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남성들은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 저임금이나 기피 업종을 불문하고 취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남성 취업자 증가율은 매달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3

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매달 2%를 넘어서 평균 2.4%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5월 여성 취업자는 98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증가했다. 그동안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976만7000명보다 12만9000명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로 보면 15~29세 여성의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9.7% 줄었으나 50~59세 취업자는 8.2%로 50대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여성의 취업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과 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가장 많고, 건설업과 같은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업종에의 여성 진출도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남성들이 고임금과 안정된 직장을 찾아 쉽사리 취업을 못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런 조건을 고려치 않고 일자리는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 ‘성 차별적 지자체 조례’ 권고 조치

여자라는 이유로 비상근무나 당직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여성의 제복을 치마로 제한하고, 또 여자란 이유로 비상근무와 당직에서 제외하는 등 인천시의 자치법규에 일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조례와 규칙의 삭제 및 보완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인권위는 “인천시공무원근무규칙에서 여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

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갖는다거나 여성은 보조직무에 종사한다는 사회 관념이 투영된 것”이라며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관련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성의용소방대를 따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성은 치마 제복을 입도록 제한한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이장·통장의 자격요건을 일반예비군과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으로 제한한 일부 구(區)의 통·반 설치 조례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한 인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등이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가 의견을 요청해온 자치법규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주부층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는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 주부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6월부터 1,800여명을 대상으로 70개의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주 5일 근무, 문화·여가 생활 정착, 맞벌이 부부 보편화로 고용 창출이 증가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 직업교육 후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교육훈련은 6월부터 8월까지 직업전문교육(100시간 이상)을 비롯한 취업대비교육(6시간)

등 최소 106시간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교육 종료 후 6개월까지 이루어진다. 교육훈련생 선발기준은 실업여성, 경력단절여성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취업 준비 여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생활보호대상여성, 실업상태가 3년 이상인 여성은 우선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은 지역의 훈련실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또는 한국생산성본부(www.kpcwin.or.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를 위탁관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잡-서포터즈(job-supporters)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일자리 확대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3배로 확대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 기준으로 30%까지 확대된다.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단지는 조경이 잘 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가끔 산책삼아 그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북한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꽃구경을 하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혹 이사를 하게 되면 몇 층 정도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려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는 유인물 한 장이 있었다. 뉴스에서 여러 번 방송한 일이 있었던 아파트 값 담합 공문이었다. 7층 버튼을 누르고 공문을 읽고 있자니 갑자기 덧정이 싹 가시는 것이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지만 나는 내리지 않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그동안 막연하게 가졌던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호감이 싹 가시고, 산책하던 기분마저 망쳐 버렸다. 부녀회나 동 대표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문구였다. 저 유인물을 아이들이 읽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은근히 화까지 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평수의 우리 아파트에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이 엘리베이터 정면에 '텍'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과 나는 헛웃음을 웃으며 "참 기가 막혀..."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타니 누군가가 그 유인물 위에 "둘 아이들"이라고 써 놓았다. 1층 게시판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에는 거의 같은 필체로 "도색이나 하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 남편과 나는 동시에 웃었다.

남편과 나는 대학가 앞에서 서점을 하다가 1980년대 말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서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빚만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그 후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생각은 해 보지도 못하고 시어머님께 맡겨졌고, 우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가까운 친척과 선후배에게 진 빚은 쪼개고 쪼개 다 갚았다. 그러는 동안 이사는 수없이 이어졌고, 내 집을 갖기까지는 거의 13년이 걸렸다. 그것도 융자를 잔뜩 안고 말이다. 그러고도 출판사를 차리기 위해 다시 또 집을 팔고 이번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한지 3년이 되어간다. 그러니 이 집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청춘이 간다는 '슬픈 말'

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 단순히 생각하면 이 집값이 올라가면 나도 너무 고달프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으로나마 좀 부유해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가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 집을 팔아도 이사 갈 집값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처럼 또 청춘을 집에 담보 잡혀 보낸다면 이 또한 '슬픈 일'이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져 은행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렇다면 부녀회나 동 대표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급행열차에 올라탄 한국 국민들은 저마다 땀을 흘리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세계 몇 위' 하는 구호만큼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는 어느 사이 많이 각박해졌고 경제일변도며 시아가 짧아졌다. 우리의 문화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 부인들은 천국에 산다는 표현을 한 일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권을 부인들이 쥐고 있고, 자녀 교육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부분 부인들의 몫이다. 때문에 한국의 부인들에게는 더 넓은 사고의 폭과 멀리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외국어의 명사 앞에는 남성, 여성을 칭하는 관사가 붙는다. '지구'라는 말 앞에 여성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여성의 의무는 지구와 같이 창조와 운행, 배태와 교육 등 우리 인생사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한다. '나'만 잘 살아가는 순조로운 운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운행'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을 때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치인 중 반 이상이 여성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패권주의나 권력중심이 아닌 조화와 사랑의 하모니로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한 토론을 한번 벌여보고 싶다. 현실적인 토론거리라고 생각된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척도나 시대반영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식을 키우며 가슴 덜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여성이, 앞으로 더 위대해져야 할 여성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정면에 보다 진취적이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일까? <한순/수필가>



도서출판 나무생각 발행인 겸 주간. 200여 권의 책을 기획, 편집했으며 쉽게 풀어 쓴 고전으로 <우리 좋은 고전> 상수해, 국민일보 오피니언에 <에세이> 연재. 현재 수필가로 활동 중.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금융상품은 취급기관도 많고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금융기관의 어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 다음은 장기생활설계를 위한 재산 늘리기의 첫 걸음인 금융상품 선택 중 목적과 기간을 고려한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등 3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저축의 목적이나 기간, 부대서비스의 내용 등 현실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감안하여 적합한 상품에 가급적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수입이나 재산상태,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생활 준비 등 구체적인 장기 저축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저축을 생활 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적에 고려한 선택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은 돈을 모으려는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한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금융상품에는 주택마련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개발된 장기 저

< 저축목적별 주요 금융상품 >

저축목적	주요금융상품
주택자금 마련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노후생활자금 마련*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보험 등
목돈 늘리기	정기예금, 금전신탁,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등
자녀교육비 마련	장학적금, 교육보험 등
생활안정성 확보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암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	상호부금, 신용부금 등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있음

축상품이 있고 가계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도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도 있다.

우선 목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주택마련자금을 모으려면 주택청약부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적금을 열심히 부어서 목돈을 마련했는데 이를 좀 더 불리고 싶다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을 고려한 선택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

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금리만 보고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자금 지출 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그냥 놓아두면 만기 후에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되거나 이자가 추가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돈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하여 계획을 잘 세워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자료참조: 한국은행>

<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구 분	은 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1개월 이내	저축예금, MMDA	MMF	RP		CP, CMA	저축예금	예탁금, 보통예금
1~3개월 이내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MMF, 단기수익증권(채권형)	RP, 단기수익증권(채권형)		표지어음, CP, CMA		예탁금, 표지어음(상호저축은행)
3~6개월 이내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맞춤형 특정 신탁	단기 수익증권(채권형)	RP, 단기수익증권(채권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CP, CMA	RP	예탁금, 표지어음(상호저축은행)
6개월~1년 이내	표지어음, 정기예금, 맞춤형 특정 신탁	중기 수익증권(채권형/주식형)	중기 수익증권(채권형/주식형)		발행어음		정기예금, 예탁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신탁, 맞춤형 특정 신탁, 주택관련저축	장기 수익증권(채권형/주식형), 연금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증권저축, 회사채, 국공채, 자익수익증권(채권형/주식형)	장기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정기예금, 예탁금	정기예금, 예탁금, 연금보험(공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음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란?

- 허위로 기재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6월 1일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 취지 및 기재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근절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상화하여 재산관련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하는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계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 신고해서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가?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해야 한다.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압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 받은 거래신고필증
- 다수 필지의 토지나 수개의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

◆ 금년 5월 31일 이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검인 계약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권리필증
- 대리인(법무사 등)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분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자료

◆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는가?

-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중 압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압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목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매매목록에 거래 부동산과 통합금액을 기재한다.
- 다만, 건물등기부에 대지권(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예: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압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통합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관할지자체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에 대하여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세무관서 등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자료참조: 재정경제부>



가스안전사용 요령

- 가스 사고 1위는 '음식 조리중 발생', 가스 사용 중 '불꽃확인' 필수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가스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65%가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스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바로 알아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스 사용 중 불꽃확인 필수!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과열'로 가스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스 사용 중 불꽃확인은 필수다.

- 불꽃 색깔이 황색이나 적색인 경우는 불완전 연소되는 것으로, 연소 효율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서 과한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사용 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

본다.

- 불이 꺼질 경우 소화 안전장치가 없는 연소기는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으므로 가스를 잠근 다음 켜진 가스가 완전히 실외로 배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재점화 해야 한다. 폭발범위 안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된 가스는 아주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되므로 배출시킬 때에는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전기제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방석이나 빗자루를 이용함으로써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을 막아야 한다.
- 사용 중에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연소기의 콕과 중간밸브를 잠그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또는 장마철) 가스안전관리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여름철 휴가나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가스 연소기의 콕은 물론 중간밸브를 잠그고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계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가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출된 LP가스의 경우 공기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닥 같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가 예상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계량기 옆의 메인 밸브까지 잠그고 대피해야 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밸브를 잠그고 체인 등을 이용,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대피해야 한다.

침수지역에서의 가스 시설을 복구할 때는 도시가스 및 LP가스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LP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 누설점검 및 응급조치

누설과 폭발에 의한 가스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평상시 안전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설점검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주방용 액체세제와 물 1:1정도의 비율)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 가정의 시설은 호스가 아주 낡았다든가 연소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와 배관의 연결부와 같은 접속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만약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밸브와 메인밸브를 잠그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 줘야 한다.

이 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후, LPG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자료참조: 한국가스안전공사)



풋고추, 영향 만점! 다이어트 만점!

얼마 전 모 방송 프로그램의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비타민 10대 밥상'에 풋고추가 포함되었다. 고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풋고추는 매운맛이 적으면서 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녹색 채소로서 가치가 높다.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고추에 대해 알아보자.

비타민 C의 보고

고추 100g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50배나 많이 들어 있고, 귤보다는 2~3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 고추의 비타민 C는 고추 속의 캡사이신 때문에 산화되지 않아서 조리를 해도 손실이 별로 없다.

또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탄수화물로는 당질과 섬유질이 들어 있고, 무기질로는 당질과 섬유질이 들어 있고, 무기질로는 칼슘과 인 그리고 철분·칼륨 등이 골고루 들어 있다.

소화촉진 혈액순화 개선

고추는 성질이 뜨겁고 맵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식

품이다.

고추의 매운 맛은 소화를 잘 시키고 침샘과 위샘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 고추의 매운 맛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행을 좋게 하며 위액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

고추는 김치나 다른 요리에 적당히 이용하면 식욕을 돋우고, 소화율을 높여 발육을 돕는다. 고추를 발효 식품에 적당량 첨가하면 유산균의 발육이 아주 활발해진다.

따라서, 젖산균의 발육을 돕는 고추의 캡사이신 때문에 고추를 넣은 김치를 먹으면 유산균 음료를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하게 매운 것을 먹으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

은 매운 고추를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에 효과적

고추의 다이어트 효능 광고를 정부가 허용할 정도로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 교토대학 농학부 가와다 교수의 쥐 실험결과, 확실히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을 배합한 먹이를 섭취한 쥐 그룹 쪽이 축적 지방도와 혈중 지방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캡사이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중추를 통해서 자율 신경의 하나인 교감 신경이 반응을 한다. 이러한 자극에 의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의 작용에 의해 체내의 지방은 지방산이 되고 당질은 간장에서 분해되어 각각 에너지원이 되어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추를 먹으면 운동을 하고 난 후와 마찬가지로 몸이 따듯해지면서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고추의 캡사이신이 지방이나 당을 연소시켜 활동력을 급격히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고추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지방 연소를 통한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역기능과 내장기능 높여

자율신경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다.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잘 유지할 때 건강하

고 면역기능이 왕성하게 된다. 그러나 균형이 깨어져 부교감 신경이 긴장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붓고 혈관이 확장되어 콧물이 나고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이 때 고추를 먹으면 캡사이신이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부기가 가라앉고 염증이 치유되며, 부어올랐던 혈관이 수축되어 막혔던 코가 뚫리게 된다.

또 캡사이신에는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켜 내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면역기능도 강해진다.

산화방지 및 살균작용

최근 고추를 섞었을 때 식용유의 산패가 눈에 띄게 억제된다는 실험결과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 때문이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산화방지와 살균작용을 한다. 김치에 젓갈을 넣으면 젓갈의 산패 때문에 비린내가 나게 되는데, 젓갈의 비린내를 없애고 지방산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다.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전통 식품으로 김치에 고추를 조미한 창의력은 우리 조상의 슬기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운 성분의 고추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삼가야한다. <자료참조: 농촌진흥청>



단백하고 2소한 두부요리

웰빙과 함께 최근 '두부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
가벼운 저렴한 고단백 식물성 식품인 두부로 날씬하게 건강을 지켜보자.

두부쇠고기편채

재료 > 두부
1/2모, 쇠고기
(안심) 300g, 깻
잎 12장, 홍고추1
개, 찹쌀가루 1/2컵,
소금2작은술, 후춧가루, 참기름, 식물성식용유 약간씩, 소
스(다진파 · 다진마늘 1/2큰술씩, 간장 2큰술, 설탕 · 식
초 · 배즙 · 연겨자 1큰술씩, 깨소금 · 참기름 1작은술씩)

<만드는 방법>

- ① 두부는 가로 2cm×5cm×2cm로 썰어서 소
금과 후춧가루를 뿌린 뒤, 식용유 두른 프라이
팬에 노릇하게 지진다.
- ② 쇠고기는 안심을 넓적하게 준비해서 소
금,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 ③ ②의 양념한 안심에 찹쌀가루를 묻혀 냉
동실에서 10분간 굳힌다.
- ④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찹쌀이 묻은
안심을 넣고 지진다.
- ⑤ 깻잎은 돌돌 말아 채썰고 홍고추는 길이
로 잘라 채썬다.



- ⑥ 준비한 소스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 소스
를 만든다.

- ⑦ ②의 양념한 쇠고기에 두부, 깻잎,
홍고추를 넣어 돌돌 만든다.

- ⑧ 소스와 곁들여 낸다.

잔멸치두부찜

**재료 > 잔멸치 1/2컵, 두부 1모, 흰 후춧가루 · 참기
름 · 구운 김 약간씩, 부추소스(송송 썬 부추 1/2컵 분량,
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2큰술,
깨소금 1/2큰술, 참기름 1/2큰술)**

<만드는 방법>

- ① 잔멸치는 체에 내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는다.
- ② 두부는 칼 옆면으로 으깨어 면보에 싼 후
꼭 짜서 수분을 제거한
다.
- ③ 잔멸치와 두
부를 한데 담아 참
기름과 흰 후춧가루



를 넣고 고루 섞은 후 모양틀에 넣고 김이 오른
찜통에 찜는다.

- ④ 분량의 재료를 섞어 부추 소스를 만든 후
③의 잔멸치두부찜이 따뜻할 때 끼얹고 구운
김을 부수어 얹는다.

※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던 멸치를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볶아내면 보관하면서 생긴 습기와 나쁜 냄새가 제
거되고 한결 고소한 맛이 난다.

두부햄버거스테이크

재료 > 두부(큰 것)
11/2모, 양파 1/2개,
빵가루 1/2컵,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표
고버섯 4개, 올리브
오일 2큰술, 여러 가지 야채 100g 발사믹 드레싱(올리브
오일 1/2큰술, 발사믹 비네거 1/2큰술), 버섯불고기 양념
장(간장 · 다진 파 1큰술씩, 설탕 · 다진 마늘 1/2큰술씩,
후춧가루 약간,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방법>

- ① 두부는 으개서 마른 면 보자기에 싸 무거
운 것으로 눌러 물기를 쥔다.
- ② 양파는 다져서 팬에 올리브오일을 약간
두르고 볶아 식힌다.
- ③ 두부 으갠 것에 양파 볶은 것과 빵가루를
넣고 섞는다.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고 치대서
끈기가 나게 반죽해 4등분 한 다음 동그랗고
납작하게 만든다.
- ④ 팬을 달궈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두부를
넣어 양면을 노릇하게 굽는다.
- ⑤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갓 안쪽을 씻어



서 기둥을 떼고 물기를 살짝 건는다. 얇게 썰어
서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볶다가 불고기
양념장을 넣고 볶는다.

- ⑥ 야채는 씻어서 물기를 건고 먹기 좋은 크
기로 뜯어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비네거를 넣고
살살 섞는다.

- ⑦ 접시에 두부 햄버거스테이크를 담고 그
위에 버섯 볶은 것과 야채를 얹는다.

두부냉국

**재료 > 두부 1모, 오이 1개, 붉은 고추 1개, 실파 4대,
국물내기용 멸치 10마리, 청주 2작은술, 국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 약간, 물 4컵**

<만드는 방법>

- ① 두부는 팔팔 끓는 물에 넣어 데친 다음
깍둑 썬다.
- ② 오이는 소금으로 껍질을 문질러 씻은 후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썬다. 실파는 손질해서
송송 썰고, 붉은 고추는 잘게 썬다.
- ③ 멸치를 냄비에 담고 물 4컵을 부어 7분 정
도 팔팔 끓인다.
- ④ ③의 멸치는 건져내고 청주와 국간장, 다
진 마늘을 넣어 섞은 후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
힌다.
- ⑤ 그릇에 두부와 오이, 잘
게 썬 붉은 고추, 실
파를 담고 간을
맞춘 국물을 붓
는다. 먹기 전 얼
음을 띄워 낸다.





치아 건강의 첫 걸음, 유치(젖니)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예로부터 오복(五福) 중 하나로 치아 건강을 꼽아왔다. 그만큼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는 얘기다. 6월 9일, 국민 치아건강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한 '치아의 날'을 맞아 치아 건강관리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어릴 적 수유습관과 칫솔질 습관이 중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치과 질환 예방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아의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치아 건강의 시작은 유치 관리다.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해 만 2~3세까지 나오는 유치(젖니)는 영구치보다 석회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 또한 유치는 영구치가 질서 있게 나게 할 뿐 아니라 발음 기능, 음식물 섭취 기능, 턱뼈의 정상 발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올바른 수유 습관이 중요하다.

충치 예방을 위해선 잠자기 전이나 밤에 젖을 먹이는 대신에 보리차나 생수만 물려 재우는 게 좋다. 아기가 보챌다고 별 생각 없이 우유병을 물리는 것도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만 6세경에 영구치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충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올바른 간식 습관과 칫솔질을 통해 치아 관리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간식은 캐러멜처럼 치아에 오래 남아 있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탄산음료나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칫솔질의 경우, 처음에는 아이가 직접 닦아 보도록 하고 부모가 한 번 더 닦아주는 게 좋다. 스스로 칫솔질을 잘 할 때까지 부모가 수시로 검사하면서 올바른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칫솔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아 건강에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어린이의 경우 충치가 없더라도 3~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고, 청소년기서부터는 1년에 1~2번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치과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치아 건강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이다.

- 치아의 불순물을 '솔로 쓸어낸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한다.
-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치아 앞면뿐 아니라 뒷면도 깨끗이 닦는다.
- 충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금니 표면 부분은 앞뒤로, 좌우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는다.
- 입천장과 혀바닥도 가볍게 칫솔질을 해주면 입냄새도 제거된다.
- 칫솔질 후에는 입을 크게 벌려 거울을 보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청결 상태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며, 식후에 바로 이 닦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

로 양치질을 여러 번 한다.

- 칫솔질 후 살균이 되도록 헷별이 드는 곳에 컵을 놓고 솔 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칫솔을 그 안에 두는 것이 좋다.
- 자이리톨 같은 설탕 대체 감미료로 만든 껌을 씹어서 치아를 깨끗이 해준다.

치아 건강 관련 상식

● **좋은 칫솔이란?**

강모의 끝이 둥근 나일론 재질이 좋다. 강모가 두꺼울수록 치태제거는 잘 되지만, 잇몸이나 치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강모가 얇을수록 치태제거가 어려우므로 사용하는 사람의 구강위생환경에 맞는 칫솔을 선택해야 한다. 칫솔의 솔 크기는 어금니 2개 덮을 2~3cm 정도가 적당하다.

● **청정제나 약품이 잇몸병에 효과가 있나요?**

잇몸병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청정제나 잇몸 약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일시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병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한 후 치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이용해야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치료가 잇몸병에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다. <내용참조 : 서울시치과의사회>



장마철, 자동차 관리 10계명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집중 호우로 차가 침수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도 커졌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발표한 ‘장마철 자동차 민간요법 10계명’을 실천해 차량 손상을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보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① 담배꽂초 활용

담배꽂초를 거울에 문지르면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빗속에서 갑자기 윈도 와이퍼가 고장이 났을 때도 유용하다.

② 샴푸·소금물로 습기 방지

차창에 김이 서리지 않게 하려면 에어컨 송풍구를 전방 유리쪽으로 올린다. 샴푸와 소금물을 혼합해 수건에 적신 뒤 차창 실내 쪽을 닦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뿌리면 된다.

③ 불법·침수 주차 조심

강변, 하천, 교량 밑 주차는 금물. 차량 전면이 출구를 향하게 주차하고 비가 많이 오면 차를 고지대 등 안전지대로 옮긴다. 불법 주차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하면 보험료가 추가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급할 때는 자동차도 음료수를 마신다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 과열 현상이 발생했는데 당장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알갱이가 없는 음료수로 응급조치를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해 부동액을 혼합한 냉각수로 교체한다.

⑤ 자동차도 일광욕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면 날씨가 맑은 날 자동차 바닥 매트를 걷어내고 차문과 트렁크를 활짝 열어 일광욕을 시켜야 한다. 매트 밑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다.

⑥ 장마철 타이어 공기압은 ‘10% 업(up)’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약 10% 높여준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교체하고,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⑦ 자동차도 ‘동맥경화’ 조심

생수, 시냇물, 우물물 등 경수는 냉각수 순환에 지장을 주는 ‘동맥경화’를 일으켜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증류수, 수돗물, 빗물 등 연수를 사용한다.

⑧ 자동차도 겨자물을 먹는다

겨자를 물에 혼합해 가속 페달 옆 공기흡입구와 송풍구에 천천히 뿌리면서 송풍기를 3~4단으로 틀면 귀찮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⑨ 침수車 잘못 다루면 폐차

차가 물에 잠길 경우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일단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요청한다. 침수 사고를 겪으면 차의 중고 가격이 30% 이상 하락한다.

⑩ 기술운전보다 정보운전

장마철에는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정보 운전’을 해야 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강산무진 김훈 著/ 문학동네



김훈은 특유의 감각적 문체로 빛나는 산문을 발표해 오다가 장편소설 『칼의 노래』를 발표함으로써 90년대 이후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발표한 작품은 많지 않지만, 그것들은 발표될 때마다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훈의 소설은 삶의 피폐한 속 모습을 집요하게 들추어낸다. 대개의 경우 주인공들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지만, 그 일상을 한 겹만 벗겨보면 가족의 병이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모순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억지 평정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욕망까지 내면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일상적 삶 자체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소외당한 존재의 내면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욕망의 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김훈의 소설은 어떤 면에서 잔인하기조차 하다. 『강산무진』은, 오랜만에 만나는, 삶의 고통과 허무에 정면대결을 하는 소설집이라 할 수 있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호남명촌 구림 구림지편찬위원회 著/리북



명촌(名村)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할까? 산 좋고 물 좋고, 무엇보다도 인심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산 좋고 물 좋다는 것은 자연이 좋다는 뜻이고, 인심이 좋다는 것은 넉넉한 정신문화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택리지』를 쓴 이종환도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은 명촌일 수 없으므로, 『호남명촌 구림』은 영암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마을 구

림의 이야기다. ‘비둘기 숲에 깃든 공동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구림(鳩林) 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잘 조화된 호남의 명촌이다. 월출산 달맞이에서부터 천 년 고찰 도갑사에서 기도까지, 구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멀리 왕인박사와 도선국사에서 가까이는 지금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 책은 구림이 어떤 정신으로 인간을 이끌어오고,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구림을 닦아갔는지를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림 마을 사람들이 손수 쓴 마을공동체의 역사라는 점에서 향토 역사서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이한우 著/해냄



예나 지금이나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역사전공자들이 등한시한 주제 중의 하나가 또한 이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으나 우리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나 사회경제사학의 풍미, 민중사관 등이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그러한 학계의 흐름에 별 상관이 없는 저널리스트가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하여 역사에서 배우는 조선시대 군주열전을 기획하고 태종부터 시작하여 제2탄으로 펴낸 것이다. 조선시대를 조선시대의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바, 이는 조선왕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성군으로서의 세종상에 머물지 않고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신권과의 갈등,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까지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세종을 ‘조선의 표준을 세운 임금’으로 그려내었다.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사교양서이다.

〈추천위원 :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낭만과 운치가 있는 ‘빛속 여행지’

장마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짜증스럽지만,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빗줄기는 오히려 낭만과 운치가 있다.
비 오는 날. 맑은 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소쇄원 (전남 담양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간 정원이다.

양산보(梁山甫, 1503
~1557)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
1519)가 기묘사화로 능

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에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숨어 살기 위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다.

주거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후원(後園)이며, 공간구성과 기능면에서 볼 때에는 입구에 전개된 전원(前園)과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계원(溪園) 그리고 내당(內堂)인 제월당(霽月堂)을 중심으로 하는 내원(內園)으로 되어 있다.

비 오는 날 소쇄원을 찾아 나서는 대숲 바람에 스치는 잎새 소리와 빗소리가 잘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준다. 좁은 개울 너머 광풍각 마루에 앉아보고 걸음을 옮겨 제월당에도 들러 상념에 잠겨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운길산의 수중사 (경기도 남양주)



산세가 부드럽고 등산로가 순탄하여 가족 산행이나 가벼운 주말산행에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운길산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40km, 북한

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양수리에서 서북쪽으로 4km 거리에 솟아 있는 산이다.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수중사에는 지방문화재 제22호인

팔각 5층 석탑과 5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남한강과 북한강을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뛰어나 해동 제일의 사찰이라 옛사람들은 전했다. 우리 땅에서 가장 좋다는 물, 수중사 약수전 앞 석간수로 끓인 녹차는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성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와 교류하며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 내리는 숲 속의 고즈넉한 절이 발산하는 그윽한 향기로 아늑한 휴식과 여행의 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선유구곡 (충북 괴산군)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7송정(현 송면리 송정부락)에 있는 함평 이씨택을 찾아가다가 산과 물, 바위, 노송 등이 잘 어우러진 절묘한 경치에 반하여, 9달을 돌아다니며 9곡의 이름을 지어 새겼다 한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글자는 없어졌지만 절경은 여전하다.

신선이 내려와 노닐던 곳이라는 선유동문을 비롯해 경전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가대, 기국암, 구암, 은선암이 9곡을 형성하고 있는 절경이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진다.

비 오면 더욱 풍류가 넘치는 계곡으로 9곡이 다 아름답지만, 제5곡인 와룡폭포에 이르면 용이 물을 내뿜는 듯이 쏟아내는 물소리가 벼락 치듯 하고 흠뻑 젖는 물은 안개를 이루어 장관이다.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 · 도 지부 234개 시 · 군 · 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지도자대회」 개최

시지부

5월 12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부산지역 주부교실 임원 및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건강사회구현과 여성 발전에 앞장서는 주부교실’이 되도록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도자대회」를 가졌다.



우리 쌀 사랑하기 및 우리농산물 · 수입농산물 비교 경진대회

시지부

5월 12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지도자대회와 함께 우리 쌀 사랑행사를 가졌다.

우리 쌀의 우수성 및 홍보를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산 출장소 양수호 소장의 특강이 있었고, 이후 우리 농산물 · 수입농산물 비교 경진

대회를 개최해 주부들의 우리 농산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가졌다.



경제소비교육 실시

시지부

5월 16일과 17일 명장초등학교와 승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 길러진 소비습관 및 절약습관이 어른이 되어도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는 경제 소비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이주 여성을 위한 노래로 배우는 한글교실’ 개강

시지부

5월 14일~10월 29일까지 25주간 매주 일요일 대안성당 2층 강의실에서 이주 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노래로 배우는 한글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어가 서툰 모친의 영향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2세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수돗물 체험 투어

시지부

5월 22일 대구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 소비자단체 수돗물체험투어에 시지부 회원 18명이 청도 운문댐을 비롯해 관련 시설을 방문해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북 愛 발견’ 프로그램 참가**시지부**

5월 24일 국제보상공원 화합의장에서 진행된 대구MBC ‘경북 愛 발견’ 프로그램에 회원 30명이 참가해 장기자랑 및 퀴즈를 풀면서 경북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경북 애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 및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시지부**

지난 5월 10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여 후 동인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골든벨에 회원 10명이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다. 5월 26일에는 중앙도서관 3층 1강좌실에서 주부대상으로 실시한 식약청 주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특강에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 방법 및 피해 예방법을 교육 받았다.

인천광역시지부**국민건강보험 관련 소비자단체 교육 및 간담회 참석****시지부**

5월 19일 수원 경인지역본부 8층

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관련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복지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릴레이 사랑나눔실천 및 봉사활동 서구지회, 계양구지회, 연수구지회, 남동구지회, 강화군지회

서구지회는 매달 석남동 노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750분께 특별한 별식을 마련해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해 참석치 못한 30분의 어르신께도 도시락을 정성껏 마련해 전달했다.

계양구지회는 5월 4일 회원 12명이 구내 위치한 노인 복지관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 300분께 중식을 대접하며 이웃 사랑을 전했다.

연수구지회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 선학 복지관에서 노인 200분을 모시고 음식 제공 및 공연으로 노인 공경의 실천이 가족 사랑의 근본임을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5월 19일에는 회원 10명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5·31 투표용지 점검 및 홍보물 작업에 참여했다.

남동구지회는 5월 3일 회원 13명이 장애인 자립장을 방문해 일손 돕

기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매주 월~금요일 회원 19명이 중앙 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8일에는 회원 30명이 250분에게 급식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 10일에는 회원 12명이 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 수질 검사와 쓰레기 줍기 등을 실시했다.

강화군지회는 5월 8~10일 구내 위치한 공공식당을 방문해 식품위생검열을 실시했고, 15일~17일 초·중·고등학교 급식 점검 감시단 활동을 전개했다. 23일에는 회원 12명이 강화 재래시장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시지부**

5월 15일과 18일 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오·남용 예방과 함께 바른 선택법 등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친환경 농산물 현장 견학**시지부**

5월 26일 회원 45명이 수북면 늘푸른농원, 대나무건강나라 등 친환경 생산 농가를 방문해 농촌체험과 함께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직거래 구입을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대전광역시지부****교장·교감 선생님과의 간담회****시지부**

5월 12일 유성호텔에서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오광록 대전광역시 교육감과



동·서부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서로 협조하여 교육계 불신 해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스승의 노래 제창 등으로 참된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0회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시지부**

5월 23일~24일 대전주부교실 2층 강당에서 탄방문화의 집 주관으로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맑고 고운 정서를 담은 동요 부르기 통해 어린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상업적 취지의 대중문화 전이를 완화하고자 23일 서구관내 초등학교 학생 28팀이 예선을 거친 후, 24일 12팀이 본선에 진출해 선의의 각축을 벌여 봉산초등학교 김소정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의료분쟁 자문위원회****시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의료관

련 소비자문제에 대한 수시 자문은 물론 합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1/4분기 의료 소비자 상담결과에 대한 분석, 의료자문 등 의료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가맹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미래 방안 연구 간담회**시지부**

고용불안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종 체인점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열고 있다. 이에 시지부는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6종 88곳을 대상으로 가격 및 가맹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5월 30일 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대한 발전적 계약 관계를 비롯한 가맹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미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광역시지부**에너지절약 캠페인****시지부**

지난 5월 3일 회원 50명이 롯데백화점을 출발해 현대백화점까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배포하며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다.



은빛사랑과 함께하는 유아 다도 예절 교실

시지부

5월 10일 본 시지부 교육장에서 울산초등학교 유치원생과 지역 어르신들 50명이 요리 만들기, 한복 입는 법, 다도 예절 등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원아들에게는 원만한 인성교육을, 노년을 맞는 어르신에게는 지혜 전수 기회와 더불어 풍요로운 삶 제공으로 행복한 가정문화를 정착하고자 했다.



청소년환경탐사대 및 자원봉사단 발대식

시지부

5월 13일 태화강 둔치에서 오염된 산업도시 울산을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이 청소년환경탐사대를 결성 및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청소년자원봉사단 결성 발대식을 갖고, 환경보전을 위해 매월 둘째 토요일 정화활동 및 수질조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시설 견학 및 체험

시지부

5월 16일 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정수장, 소각장을 비롯해



환경기업의 선두역할을 하는 기업체 견학 및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인근 환경시설과 SK(주)를 방문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경험치 못하는 체험교육으로 환경오염 저감화를 위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봉사활동

시지부

5월 24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혜진원을 회원 10명이 찾아가 목욕, 식사제공 및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기도지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지부

5월 25일 수원 애경 백화점 앞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 직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회원 15명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참여 신청서를 받으며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화력 발전소 견학

용인시지회

5월 24일 회원 25명이 당진의 화력 발전소 및 항만시설을 견학했다. 발전소의 주요 설비 및 항만 시설 견학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인 발전소의 기능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환경정화운동

과주시지회

지난 5월 10일 임원 및 회원 15명이 봉일천읍 사무소 주변 거리 구석구석 대청소를 실시하며 환경정화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소비자개발센터 개소식

시흥시지회

5월 16일 신천동에 위치한 장승백이 부동산 2층에서 소비자 상담의 불모지인 시흥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시흥 소비자개발센터' 개소식에 가졌다. 이 자리에 중앙회 임경애 사무총장, 최명렬 소비

자국장을 비롯해 시흥시청 지역경제과 정성수 과장, 황규현 주사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지부

여성의 정치참여와 차세대 여성 리더의 리더십 향상

도지부

5월 11일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회원 100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차세대 여성리더의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순천향대학교 신은숙 명예교수를 초빙해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만이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차세대 여성리더의 역할을 설명했다.

혁신도시 공동 참여

춘천시지회

5월 25일 강원웨딩홀에서 회원 12

명이 강원도를 세계 속의 생명·건강 산업의 수도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동 참여에 동참해 후원금 마련 공동 티켓을 판매했다.

산나물 축제

고성군지회

5월 13일 마산봉 일대에서 펼쳐진 산나물 축제에 회원 10명이 참여해 두릅과 산나물을 뜯으며 대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자연의 고마움을 느꼈다.

충청북도지부

2006년 의정모니터 2차교육

도지부

5월 17일 의정지킴이 활동을 펼칠 회원 15명이 도지부 사무실에 모여 이승기 극동정보대학 외래교수로부터 의정모니터 2차 교육을 받았다. 의정모니터들은 5월~10월까지 국정운



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

5월 24일 (구)여성회관 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책 제시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시청 사거리 소방서 앞에서 회원 20명이 모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및 캠페인

충주시지회, 청주시지회, 제천시지회, 괴산군지회, 옥천군지회, 음성군지회

충주시지회는 5월 12일 회원 50명이 충주댐 광장에 모여 댐 주변 쓰레



기 줍기 등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고, 롯데마그넷터미널 앞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 팸플렛과 볼펜을 배부하며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주시지회는 매주 목요일 회원 8명이 사적도 복지회관에서 세탁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천시지회는 5월 1일 회원 6명이 하소리 종합복지관에서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6일에는 회원 13명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중식제공 봉사활동과 회원 4명이 재가가정 3가구에 밑반찬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괴산군지회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청천재활원을 회원 5명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방문해 중증장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옥천군지회는 5월 11일 회원 6명이 아동보육시설인 영실애육원을 방문해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음성군지회는 5월 25일 회원 15명이 여성회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남도지부

경제교육 및 소비자 교육

공주시지회

5월 16일 산성동 동사무실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여 단국대학교 이효선 교수로부터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경제지식 및 상식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소비자 책임과 소비자주권에 관한 명확한 정보 교육이 소비자 스스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5월 19일 시지부 사무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학생 2명에게 사랑의 교복, 도서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범도민 에너지 캠페인

천안시지회

5월 11일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충남도 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회원 등 200명이 범도민 에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생활 속에서도 쉽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홍보하며 에너지 절약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했다.

전라북도지부

거리질서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지부

5월 15일, 22일 전주 (구)한일은행 앞 사거리, 한미은행 앞, 국민은행 앞에서 회원 20명이 정지선과 신호등 지키기 등을 계도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거리질서캠페인을 실시했다. 5월 23일 진주코아백화점 앞과 중앙시장 일대에서 회원 10명이 에너지절약 홍보 부채와 팸플렛 배포 등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봉사활동

고창군지회, 무주군지회, 완주군지회

고창군지회는 5월 16일 회원 7명이 독거노인이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효도의 집'을 방문해 묵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무주군지회는 5월 5일 회원 5명이 무주군예술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잔치 행사에 참여해 음식 제공 및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완주군지회는 5월 20일~30일 회원 6명이 구이면에 위치한 과수원을 방문해 복숭아적과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지부

여성 정치의식 강화 워크숍 및 공명선거 캠페인

도지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0일 여수시청 회의실에 회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깨끗한 선거풍토 확산 및 능력있는 정치 지도자 선택 등 여성의 의식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여성 정치의식 강화 워크숍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다.

자전거타기 캠페인 및 안전교육

도지부

지난 5월 10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회원 50명이 화순 제일초등학교 앞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24일 도지부 사무실에 화순군내 거주하는 주부 및 일반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 준수할 규칙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기

순천시지회

5월 9일~10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유도해 무분별한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릴레이 사랑나눔실천

나주시지회, 담양군지회, 구례군지회, 고흥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나주시지회는 5월 16일 남산공원에서 개최된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참색유산놀이'에 식사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개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했다. 17일에는 남산공원 환경 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담양군지회는 4월 29일~5월 7일까지 담양읍 대나무 축제 행사에 회원 30명이 참여해 불우 이웃돕기 일일착집을 운영하고 행사장 안내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구례군지회는 5월 11일 회원 20명이 군내 위치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 목욕, 세탁 및 주변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흥군지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회원 20명이 고흥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평소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 12명에게 선행 아동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장흥군지회는 5월 10일 회원 30명이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으로 인해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

내 거주 독거노인 60분에게 돌보기를 마련해 전달했다.



강진군지회는 지난 5월 5일 회원 40명이 군내 위치한 강진 자비원을 방문해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위로하며 준비한 음식, 의류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해남군지회는 5월 16일 회원 20명이 군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목욕 및 세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밑반찬을 전달했다.

영광군지회는 5월 18일 회원 20명이 군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 옷 및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실천했다.

진도군지회는 5월 7일 군내 거주하는 노인과 독거노인 150여분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어 경로효친 정신을 고취하고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9일에는 회원 30명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68가구를 방문해 반찬을 비롯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16일에는 회원 20명이 군내에서 실시한 청소년 백일장 수상자 10명에게 부상으로 마련한 3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전달했다.

경상북도지부

사랑나눔실천운동

포항시지회, 경주시지회, 김천시지회, 문경시지회, 성주군지회

포항시지회는 5월 16일 회원 전원이 신광면에 위치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 가지치기 등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7일에는 성모병원 내 마이라집을 찾아가 치매 노인 음악치료 및 오락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정성껏 마련한 송편 및 다과를 접대했다.



경주시지회는 경주시주최 어린이날 행사시 어린이들에게 빵, 우유, 스

케치북을 무료제공하고,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개최된 시민건강걷기대회에 회원 11명이 참가했다.

김천시지회도 5월 1일 응명동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여성회관 준공식에 회원 전원이 참석해 무료 음료 제공 및 안내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5일에도 친환경사업소에서 열린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어린이날 행사에 회원 전원이 참여해 게임진행 및 안내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문경시지회는 5월 3일~5일 문경도자기전시관에서 열린 '농수산물 비교 전시회'에 회원 4명이 한조가 되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성주군지회는 5월 10일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식 및 다과를 준비해 대접하며 생신을 맞으신 분을 축하해드렸다.

바른 선거 실천 캠페인

군위군지회

5월 13일 지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바른 선거 시민의 모임 주최 5·31 전국지방선거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동참해 군위군청을 출발점으로 K마트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깨끗한 정치 실현에 앞장섰다.

경상남도지부

2006년도 브랜드 쌀 식미평가

도지부

5월 17일~24일 주부교실 강당에서 '2006년 소비자가 참여하는 브랜드 쌀 식미평가'를 위해 회원 10명이 시료구입, 회원 50명이 식미평가에 참여해 경남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밀양시지회

지난 5월 5일 삼문동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밀양아라제 행사에 회원 7

제주도지부

세탁물하자심의위원회

도지부

지난 5월 3일 본 센터 3층 강당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일환으로 세탁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 6인과 회원 10명이 참석해 총 8건에 대한 의류심의를 개최해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

제주도청의 위탁을 받아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10명이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위치한 대형매장 10개 업소와 재래시장 2곳의 55개 기초생활필수품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부교실게시판 ●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본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 새롭게 요가교실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 (02)2265-0637, 2265-3627~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 (02)2273-2485,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6월 수강생 모집

본회는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인력개발

센터(광진구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 간	수 강 료
취업 및 창업훈련반				
실버케어매니저	7.18	6주	월~금(9:30~13:30)	3만원
글짓기 독서지도자 양성반 6기	7.10	12주	월(10:00~13:00)	12만원(교재비별도)
주산식 암산 지도자	7.5	4주	수,금(10:00~13:00)	5만원(교재,주판별도)
재직근로자				
플로리스트 자격증반	7.4	10주	화,목(19:00~22:00)	60만원(재료비포함, 50%~80% 환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어린이 옷 만들기	7.4	3개월	화(14:00~17:00)	월5만원(재료비별도)
전통한복, 개량한복 만들기	7.5	3개월	수,목(14:00~17:00)	20만원(재료비별도)
의류수선 및 리폼	7.3	12주	월(14:00~17:00)	월4만원(재료비별도)
리본아트 자격증	7.3	12주	월(13:00~14:30)	6만원(재료비 회당5천원)
선물포장 자격증	7.3	12주	월(13:00~14:30)	6만원(재료비 회당5천원)
양재초급	7.4	12주	화(14:00~17:00)	15만원(재료비별도)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플로리스트 자격증반	7.4	12주	화,목(19:00~22:00)	60만원(재료비포함)
비즈공예(체험반)	7.4	8주	화(19:30~20:30)	4만원(재료비별도)
컴퓨터교실				
나모를 이용한 인터넷 창업과정	7.4	4주	화,목(10:00~13:00)	6만원(교재비별도)
엑셀	7.4	4주	화,목(15:00~17:00)	2만원(교재비별도)
한글2002	7.4	4주	화,목(13:00~15:00)	2만원(교재비별도)
포토샵-1(초급)	7.3	4주	월,수,금(10:00~12:00)	4만원(교재비별도)
포토샵-2(중급)	7.3	4주	월,수,금(12:00~14:00)	4만원(교재비별도)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의 : (02)3409-1948~9